

詩속의 사랑, 詩 밖의 눈물

김영승 시집 「취객의 꿈」

글썩?

현대시의 흐름을 한마디로 줄이고 줄여 말한다면 ‘글썩?’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단정짓기 어렵고, 갈래 또한 제멋대로여서, 요즘은 아예 마음대로 치열하게 쓴 시(?)를 보면 반갑다. 그런 시편들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김영승의 「취객의 꿈」(청하, '88)은 바로 나의 이런 어설픈 선택의 잣대에 오랜만에 걸려든 월척이다.

읽어가면, 어쩌면 실명인 듯도 하고 허명인 듯도 한 仁玉에게 바치는 연시(연시라는 규정은 시집 뒤쪽 문학평론가 정효구씨의 규정이기도 하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는 몇가지 고정관념을 흐트러 놓고, 날마다 곱씹는 상상력에 얽매인 사람들의 꼭뒤흔 후려치는 느낌을 준다.

“내 몸 醬을 담귀 바치리이까./……/내 살 膾를 쳐서 바치리이까.”라고 읊어대는 무시무시한 외침은 우리가 늘상 빨아대던 시 속의 사랑 젓줄이 아니다.

어쨌든, 사랑이 끝나고나면 초라한 이기주의자의 뼈만 남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취객의 꿈」에서 지껄여대고 있는 술취한 녀석(시의 화자-나레이터)은 독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몇 대 쥐어 맞아야겠다. 취한 사람은 호리명당하기에 깨어나라고. 하지만 애초부터 취하지 않기로 작심한 녀석은 예외이겠으나……여기서 녀석은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명료함을 잃지 않는 녀석.

따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84편의 시들을 따라 읽다보면 이젠 어질어질 취해 나자빠

지는 게 아니라, 헛기침을 몇 번하고 정신을 또렷또렷 차리게 하는 구석이 있다.

그 시 속에 퍼져있었던 사랑에 취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모티브는 다름아닌 언어다.

김영승 시인이 이미 펴낸 시집 「반성」 「車」에 실려가는 車」를 읽은 독자라면 그가 언어를 탁월하게 엮어짜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모든 시인이야 물론 언어의 테러리스트이지만). 그러나 취객의 꿈에서 마주치는 언어들들 국어사전·옥편·일반상식 책을 곁에 두지 않고 읽어낼 독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국문학관계 지식도 얼마쯤은 있어야 한다. 「思美人曲」·「續美人曲」 「終美人曲」(시 제목)에서 시인이 진정 말하고 싶은 세계를 국문학 기초가 없이 어찌 죄다 헤아릴 수 있으리요.

따라서 시 속에 얽힌 사랑을 미로찾기하듯 헤쳐나오다보면, 시인이 보여주는 세계가 무척 낯설고, 후련하고, 안타깝고, 애절하다. 바로 감동을 주는 시는 독특한 언어를 가로세로 기워 — 그러면서도 뼈아픈 자기 발견의 세계를 비벼놓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가 보다.

「취객의 꿈」이 깔아놓은 시 속의 사랑에 폭 파묻혀 있다가 126쪽의……「끝」을 읽고 시집을 덮으면 독자는 문득 시 밖에서 만나리라, 감동이라는 눈물을…….

심상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15 대교출판

‘다색의 가능성’으로 꿈의 세계 추구

이외수 지음 「꿈꾸는 식물」

이외수의 소설은 어떠한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발산하는 색깔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그의 색깔은 읽는 이의 마음에 따라 노랑계도 빨강계도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재능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많지 않은 그의 작품은 이상한 공감대 하나를 둘러싸고 이어진다. 꿈꾸는 식물, 겨울나기, 꽃과 사냥꾼, 고수……등에서 풍겨지는 주인공들의 외내적 모습들은 대부분 정신병자이거나 몽상가, 신체적 장애자들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도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의식의 흐름을 탄 진술이 아니면 중간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목도」시는 한마디로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안개의 도시다. 그 도시는 낮과 밤이 다르며, 따라서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다.

목도의 한구석-‘장미촌’-에는 매춘을 하는 아버지와 큰형, 순수와 이상 사이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작은형, 목표 없이 떠돌다가 지방대 법대생이 된 나(민기)가 모여 산다. 무식하고 포악했던 아버지에게 비해 너무도 정결하고 품위 있었던 어머니와의 대립은 큰형과 작은형에 대한 양분된 편애로 대변된다. 어릴 적부터 우등생·천재 소리를 들었던 작은형에 비해 소년시절부터 소년원을 몇번씩 드나드는 큰형의 상극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일단락을 맺게 되고, 장미촌의 음울한 이면 속에서 작은형은 극지의 식물처럼 작고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매춘을 사업 이상의 권력으로까지 부상시키는 아버지와 큰형은 마치 목도시의 불투명한 내면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뒤편지 삼켜 버리기만 하는 동물처럼 쏟아도 쏟아도 끝이 없는 욕정의 덩어리를 미끼로 한 생활이 그들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나’는 정신과 육체의 순결·순수 따위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고 차츰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된다.

마치 음지의 식물처럼 한모금의 물도 한조각의 땅도 쉬이 가져보지 못했던 제한의 도시 ‘목도’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은연중에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눈감고 너무 무의미하게 자신을 버려두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나’에 비해 작은형은 너무나 많은 꿈을 갈구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런 그의 행동은 늘 다른 사람의 외면을 받는다. 결국 그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꿈을 꾸기 위해 잠을 청한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꿈은 한시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것은 현실과 꿈과의 엄청난 차이에서 오는 괴리현상이었다.

이외수는 아마도 여기에 중심을 두었던 듯 싶다. 타성적인 일상의 반복을 탈피한 여러 색깔로 빛나는 꿈의 세계. 음울한 환경 속에서 진실한 꿈을 추구한 작은형의 流映은 한층의 재로 변한 집터 위에 남겨진 마지막 빛나는 렌즈와도 같은 꺼지지 않는 불씨-바로 우리 모두의 정신의 불씨라는 것에.

여영숙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1동 2002-22

‘孝’의 현대적 의미와 방향 제시

파천득 외 지음 「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호칭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충효사상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특히 ‘효’에 대해서는 음양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과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효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효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반응이 등장하게 되었다. 각자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심하게는 효에 대한 강조는 전근대적인

유산으로, 진심이 아닌 체면치레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된 도리와 구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 형편이다. 또 부모가 효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바탕과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효의 개념 정립이 시대에 뒤떨어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탄식론자의 주장도 있다.

이처럼 효의 현대적 의미와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는 이때, 대략

적으로나마 여기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책이 나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35명의 사회 각계인사의 에세이를 모은 「효」(범우사)는 ‘孝’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부모의 사랑이 부모로서의 의무가 아니고 진심과 진정의 자발적 발로이듯이 그 감화를 받는 자식들은 효를 단순히 금전적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이 책은 가르쳐주고 있다. 즉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체험-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불효의 단면-을 서슴없이 반성하는 태도로 밝혔는데 책의 의의와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는 한번쯤 자신의 위치를 되돌

아본다는 점에서, 자식은 사회생활과 가정에의 적응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읽어둘 필요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생각이 효에 근간을 두었음을 밝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상들의 슬기를 다시금 음미할 수 있고, 타인의 효에 대한 생각을 본보기로 하여 나 자신의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효’의 근본을 투철히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아울러 효의 개념 정립은 결국 각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밝혀 주었다.

羅相億

국민학교 교사. 충북 청주시 모충동 87-2 28/1